

투데이 칼럼

‘정치 1학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한 명도 당선되지 않은 채 전주

의 잔인한 2016년의 봄은 끝나고 있다. 꽃은 피었으나 꽃이 보이지 않는 냉정한 현실분리의 상태에 있다.

도전한 개인이나 당 지도부들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도 민주화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아랫목 아니었나? 그런데 그곳에서 유권자들은 정통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을 선택했다.

전주에는 새누리당 정운천이 당선되었고, 조치가 쟁쟁하던 김운덕 의원이 전주갑에서 낙선되었고, 완주부진에서는 원주군수를 지냈고 돈도 조지도 어머니마마하던 임정엽이 낙선되었다.

지난 4·13총선을 통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실험들을 했던 것일까? 이 실험이 다음 실험으로 굳어질 수도 있고 원래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실험도 용기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투표습관을 버리고 1번이나 3번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유권자에게도 큰 경험이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이제부터 정치 같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경고이다.



서선희

전주시의회 의원

지역정치권에는 공천만 받으면 지팡이도 당선되던 시절이 지나 갔다는 경고이고, 중앙정치권에게는 지역정서와는 상관없이 지도부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공천을 줘도 당선된다는 오만함에 대한 경고이다. 지금까지는 당선되고 나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앙정치권에 목을 매야 했다. 공천이 즉 당선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시절 좋은 한나절 꿈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현역프리미엄도 없어졌고 당에 대한 프리미엄도 사라지고 있으니 이제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정치초년생에게 불리하던 선거법의 특혜도 아무 의미가 없

어진 것이다. 우리 정치역사에서 매년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실행을 통해 유권자혁명을 이뤄냈었다. 노무현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그랬다. 그때도 정확히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기존의 통계가 완전히 통하는 시절이 아니며, 감감한 밤에 고양이 자신의 눈으로 먹이를 찾듯, 자신의 개인 눈으로 정치를 보고 꿰고 가야 한다는 시그널이다. 전북은 이제 정치1학년 과정에 들어와 있다. 통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개인 눈이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일이고 위기에 직면해도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인들은 그동안 자신의 표를 잃을 것 같은 부당스런 결정에는 늘 빠져있었고 지역에서 기득

권에 얽매어 인적쇄신을 하지 못했다. 정치인도 이제는 지도자의 눈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역 인재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저 표를 쫓는 행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조직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직면해 있다.

놀라운 일이다. 어머니마마 일이다. 정치인은 주민보다 앞서가는 사람인줄 알았지만 사실은 시대적 요구보다 훨씬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또 한번의 실험이 뒤를 따를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 있으면 당적을 아무렇게나 바꾸는 사람, 동료정치인이나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을 모르고 자신만 살고 뛰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골라내는 실험을 하려할 것이다. 정치는 발전할 것이고 뒤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도태되는 것이 발전이다. 도태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훈련이다.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남을 짓고 주민의 삶은 좀 더 행복해 질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의 실험을 기대한다.

독자재언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 근절돼야

특별한 이유없이 관공서에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파출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우고, 많은 경찰관들이 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은 더 이상 TV속 예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다수 경찰관사에서 이미 일상화되어 버린 현실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참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고 무력화된 공권력은 결국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지만, 무관심과 관대한 술문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 특히 경찰력은 우리 사회에서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해 언제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즉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권력,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시급하게 척결해야 할 또 다른 사회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미 경찰은 “비정상적 정상화” 차원에서 경찰관서 등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모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이상용 남원경찰서 주생파출소 경위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비위생적인 불량식품 ‘1399’로 신고를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자신이 된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다. 이 말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만큼 음식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현 정부 및 경찰에서는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악이란 국민안전에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가지 범죄를 이르는 말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4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량식품이 왜 4대악에 포함되는지 의아해 한다.

우선 불량식품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자.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이란 영업신고로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식품의 생산·제조·유통·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는 법을 위반한 제

품을 말한다. 제품의 원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거나, 법이 정한 위생수준을 지키지 않는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식품은 모두 불량식품으로 규정된다. 단순히 학교 앞에서 사먹던 저가식품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병든 동물·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불량식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 생산자가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면 불량식품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무조건 값싼 식품들만 찾지 말고 유통기한이나 첨가물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량식품 신고방법은 전화로 국번 없이 ‘1399’로 가능하며, 요즘은 인터넷사이트 ‘식품 안전 소비자신고센터’나 모바일 앱 ‘식품안전과수꾼’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최요한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사설

전주시 청년 취업 확대 방안 있어야

도내 취업률이 형편없는 지금이다. 그중에서도 전주시의 경우가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것이 있다.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가 그것이다. 그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가 전국의 시 단위 도시들 중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다. 그것도 고용률이 좋은 상위 도시들과 비교해 15%p나 낮은 꼴로 나왔다. 그래서 전주시에 촉구한다. 청년 취업 확대 방안이 있어야겠다. 취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데 대책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전주시는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조만간에 내놓아야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선 곤란하다. 고용 활성화와 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애써야 한다. 도내에서 가장 큰 전주시가 죽을 수 있고 청년 취업이 잘 될 터미었다. 도내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청년 고용의 분위기가 아직도 미지근하다. 무슨 까닭으로 그러는 것인지 불만이다.

다시 말하거나 전북도와 전주시는 청년 취업 확대 방안을 위

해서 고민해야 한다. 고용도 없고 경제성장도 없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는데 전혀 반감지 않은 현실이다. 그리고 여기 말이 나왔으니 지적하는데 청년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다. 일자리가 늘어나 할 판에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률이 전국의 밑바닥 수준이니 일자리가 창출해도 그게 비정규직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일뿐이다.

일지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고용 활성화와 분위기 조성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질의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업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라는 지적이다. 저번에 전북도가 전국 꼴찌 수준의 고용 성적표를 보여주더니 이번엔 전주시마저 그러니 말이 안 된다. 지금의 답답한 현실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거듭 당부하거나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겠다.

새만금 개발 정부의 의지를 물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역사가 깊은 오늘날이다. 풀이켜보니 어느새 25년이다. 사분 세기가 됐으니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의 현장을 보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지금 도민들의 여론은 분명하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확실한 의지는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장차 잘 될 거라는 식의 덕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대역사가 25년째 맞고 있다고는 하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래의 공기대로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진척된 모습을 새만금 현장은 보여줘야 했다.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새만금 사업은 공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 공기를 정한 게 이쪽에서 한 것이든 정부 쪽에서 한 것이든 신뢰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새만금 사업은 그 어떤 청사진을 그려보여 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굳이들을 도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 대형 사업

이라지만 그게 아직은 말뿐이다. 투자 인센티브라는 게 다른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간 경제 협력 건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 경제가 불황이어서 그렇다지만 이대로 속수무책으로만 있어도 되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것이다. 예전처럼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거나 장차 잘 될 거라는 식의 덕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며칠전에도 말했지만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를 보는 마음이 가난하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내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말이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도대체 감을 잠을 수가 없는 오늘날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새만금 사업은 어찌된 일인지 25년이 지나어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부를 향해서 새만금 개발의 확실한 의지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